

# 건보 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7배 증가

###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도 3.5배 증가... 김광수 의원, “고령사회” 대비한 건보 재정 대책 마련해야”

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상황을 증명하듯 노인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 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723억 원에서 2016년 4조7,145억 원으로 무려 4조4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가 증가한 7.29%로 점유율이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2008년 10조4,904억 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원의 진료비 또한 2007년 1조1,094억 원에서 3조4,958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



**뽀로토와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 앞서 음식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캐릭터로봇 뽀로토와 대화하고 있다.

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도내 ‘민주당 돌풍’... 입당 급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이 급증하는 등 전북에서 민주당 돌풍이 불고 있다. 전북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민주당 당원으로 이는 역사상 최대 당원을 확보한 셈이다.

11일 민주당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규 당원을 모집한 결과 약 54만명(권리당원 21만명·일반당원 33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권리당원의 경우 매월 1000명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 당원 신청이 급증한 것은 지난 대선 이후부터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국민의당이 추종하면서 당원 바람이 민주당쪽으로 휘몰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출립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입지자(출마자)들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당원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로드맵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민주당 당원당구에는 권리당원과 국민 투표로 후보가 결정된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는 경선 과정에서 약 50%까지 반영되는 만큼 입지자들에게는 ‘소중한 한표’인 셈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당원들을 많이 끌어온 것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김관영, 첫 ‘민원의 날’ 14일 개최

오는 14일 토요일 군산 나운동에 위치한 김관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민원의 날’이 개최된다.



김관영 의원

열린 민원 창구를 통해 군산시민 누구나 손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 역시 체계적이고 보다 투명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될 ‘민원의 날’ 현장에는 국민의당 군산지역위원회 소속 김관영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희 시장의, 양용호·이성일·최인정 도의원 등이 직접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민원의 날’ 개최는 김관영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박지준비에 돌입한 김 의원은 “집체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문제 해소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檢, MB·朴 정부 여론조작 관련 동시 압수수색

### MB정부 軍사이버사령부로 수사 확대... 朴정권 관제시위 수사도 관련자 소환 등 활기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댓글공작 활동과 관제시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남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명 ‘이명박근혜’ 정권의 여론조작 실체 규명을 향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계로, 육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시절 여론조작 활동 수사를 국정원에서 사이버사령부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휘 하에 친정부, 야권 비판 등의 온라인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날 15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담장을 참고인 자

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 또 최근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계로, 육도경 전 사령관 압수수색을 통한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검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정부 시절 관제시위 의혹 수사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전직 간부 이모씨 자택과 경우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MB국정원’ 수사팀이 아닌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3부에서 국정원 전직 간부 압수수색에 나선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대기업 자금이 동원된 친정부 시위마져 결국 국정원이 개입돼 있거나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박 전 대통령 관제시위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을 통틀어 국정원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이트리스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가 대기업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단체의 관제시위 지원 의혹 사건이다. 지난 3월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 지시로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받은 돈을 합친 약 68억원과 자체 자금을 3년 간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했다.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수차례 소환해 대기업 자금 모금, 단체 전달 취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얼마부대 등 자금 지원이나 청와대 지시 등을 받고 각종 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유성엽, “대형 공립 유치원, 보건 전문인력 전무”

전국 대부분의 단설 유치원에 보건직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읍·고창)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설 유치원 보건인력 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0개의 원아 200명 이상 대형 공립 유치원 중 2개원을 제외한 38곳에서 보건교사, 간호사 등 보건직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51개의 공립 단설 유치원 중 보건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은 41곳에 불과하고,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1.8%로 10곳 중 1곳에만 배치된 상황이다. 보건 전문 인력이 배치된 41곳은 모두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광주에 위치한 10개의 단설 유치원에 각 1명씩 보건교사가 31개의 단설 유치원이 위치한 세종시에는 유치원 별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나머지 시·도의 단설 유치원에는 보건직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원아 200명 이상의 대규모 단설 유치원의 경우 전국 40개의 유치원 중 광주와 세종시의 유치원 2곳을 제외하고는 보건인력이 배치된 곳도 한 곳도 없었으며, 학급 수가 15개 이상인 대형 단설 유치원의 경우 9곳 모두 보건 업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유성엽 위원장은 “해마다 유치원 관련 안전사고가 7,700여 건이나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건 담당 인력이 전무하다보니, 현장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거나 위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의 90% 이상이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원내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